



KOREA

Logistics AWARDS

2005년도 한국물류대상 이렇게 바뀐다



국내 유일의 물류부문 정부포상인 한국물류대상의 시상기준이 변화된 물류환경을 감안하여 소폭 변경된다.

한국물류대상 집행위원회(위원장 김정환)는 지난 3월 29일 개최된 1차 회의를 통해 물류대상 시상식을 다가오는 11월 15일(화) 서울 삼성동 소재 코엑스 그랜드컨퍼런스룸(4층)에서 개최기로 하고, 4월 21일(목)부터 6월 30일(목)까지 각 기업체와 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대상응모 및 추천을 받기로 하였으며, 한국물류대상 운영규정 또한 물류환경의 변화양상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3자물류 활성화를 통한 물류선진화 의지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일부 규정을 개정하여 확정하였다.

이 날 집행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사항 중 특히 눈길을 끈 것은 종합대상을 하주기업부문과 물류기업부문, 개인 및 단체부문에 나누어 시상하는 점과 제3자물류 활성화를 통한 물류선진화에 기여한 하주기업과 물류기업에 심사 시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한 점이다.

반면 물류업무를 외부 물류전문기업에 전혀 아웃소싱하지 않는 하주기업은 대상 수상의 응모 및 추천대상에서 제외되며, 한국물류대상에 응모하여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를 받은 후 수상을 포기하거나 거부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의 경우도 물류대상 선정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올해의 한국물류대상에서는 물류아웃소싱 비율이 높은 하주기업과 제3자물류업무를 수행하는 물류기업의 경우 심사 및 수상자 선정과정에서 유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올해 한국물류대상의 심사는 7월 4일부터 7월 9일까지의 서류심사와 7월 11일부터 7월 20일까지의 현장심사 및 7월 25일부터 7월 30일까지의 최종심사로 이뤄질 예정이다. **물류**